지난해 화엄사 5층석탑 발견 종이뭉치

통일신라 다라니경 필사본

지난해 8월 전남 구례군 화엄사 西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종이뭉치는 통일신라시대때 제작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관리국은 발견당시 흙먼지로 덮여있던 종이뭉치는 보존처리 및 정밀조사결과 서기 754~755년쯤 닥나무 한지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일부내용을 발췌해 필사하고 탑 모양의 도장을 파서 탑인(塔印)을 찍어놓은 국보급 백지묵서경(白紙墨書經)이라고 발표했다.

또 지류유물의 종이는 두께가 서로 다른 3종류로 구성돼 있었으며, 탑인은 가장 두꺼운 종이에 찍혀있고 이들의 총길이는 모두 11m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얇은 종이에 필사돼 있는 경문(經文)은 본문에 최승무구청정광명대근본다라니경(最勝無垢淸淨光明大根本陀羅尼經)이라고 씌여 있었으며, 30~75자가 불규칙하게 씌여있었고 필체도 달라 최소한 5명 이상이 함께 쓴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라니경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가운데 중요내용을 발췌해 최소한 25번 이상 반복해서 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다라니경 필사본은 불국사 석가탑 출토 국보 126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목판본)과 호암미술관 소장 국보 196호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필사본)에 이어 3번째로, 필사본으로는 2번째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지류유물이며, 종이재질이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과 동일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관리국은 원본과 같은 종이에 붙여서 원형대로 펼치는 제2차 보존처리가 끝나는대로 문화재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750년대 제작 길이 11m 추정

국보급 白紙墨書經

"손대면 부서질듯 정성없이는 불가능"

화엄사 다라니경 복원 성공 박지선씨

"흙을 털어내고 습기를 천천히 가하면서 한장한장씩 분리해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정성없이는 불가능하죠."

구례 화엄사 5층석탑에서 출토된 '다라니경'을 4개월에 걸쳐 복원한 박지선씨(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는 일본 경도국립박물관 문화재 보존수리소에서 8년간 종이유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국내 최고의 종이 보존처리 전문가로, 처음으로 우리 문화재를 복원하는 개가를 올렸다.

"화엄사 석탑에서 나온 종이뭉치는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부서질 정도로 보존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각각의 종이가 2장에서 심지어는 17장까지 달라붙어 있어 이를 떼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 서로 분리되는대로 다시 종이의 덩어리를 만든 다음 계속해서 미세한 입자의 수분이나 바닥풀 종류의 접착제 등을 이용, 종이를 낱장으로 분리해 나가는 작업끝에 복원에 성공한 박씨는 지난 89년 불국사 다라니경 복원을 떠올리며 아직까지 국내 문화재보존기술이 뒤떨어져 있음을 안타까워 했다. 당시 국내 기술로는 어려워 일본 전문가들을 동원해 우리문화재를 복원했다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난 93년 일본에서 귀국해 각종 서적 및 회화, 일반 문화재를 복원 처리하는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

성보전시관 건립 눈앞에…

월정사등 8곳 문화재관리국 협의 최종안 확정

시공주체·건축규모등 결정놓고 이견조정 필요

성보전시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확정되고 건립대상 사찰의 기본계획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전시관 건립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달 말 해인사를 비롯한 8개 사찰에 국비 5억과 지방비 5억 등 10억원의 성보전시관 국고보조금을 확정했으며, 조계종은 이를 각 사찰에 통보하는 한편 전시관 건립에 차질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따라서 조계종은 8개 사찰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이달중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를 거쳐 가람배치에 따른 위치선정, 해당사찰의 전시유물 특성에 맞는 전통적 건축형태와 전시목록 등 성보전시관 건립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필요이 따라 문화재관리국측과 현지 합동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현재 각 사찰이 계획하고 있는 건립규모 및 위치는 용주사 1백5평(미정), 월정사 2백평(미정), 수덕사 2백2평(황하루 지하), 마곡사 1백8평(현 종무소 자리), 금산사 3백평(일주문 뒷편), 대흥사 3백평(미정), 선운사 2백50평(종무소 뒷편), 해인사 6백평(홍제암, 원당암 주차장) 등으로 이외에도 전시유물목록, 건물형태 등의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상태다.

특히 성보전시관을 단순한 전시관의 용도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창달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따른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흥사의 경우 전시관뿐만 아니라 교육관 등을 확보해 대외적 지역문화 홍보는 물론 초·중·고교생의 교육을 위한 수학여행지로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하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시행주체 선정과 건립규모 등 해결해야할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사시행주체 선정의 경우 문화재관리국은 예산회계법을 들어 관급공사(지방자치단체에 시공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찰측은 부실공사 등의 가능성을 들어 시공에서 감리까지 사찰이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당해사찰은 관급공사 폐해사례와 현지 실정에 맞는 합리적 시공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찰직영시공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더욱이 최근 마곡사와 선운사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의회에서 사찰측에 공사시공권을 부여하겠다는 결의가 있어 조계종과 각 사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공사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립규모의 경우도 당초 1백평내외를 주장했던 문화재관리국이 조계종측과의 몇차례 협의를 통해 해당사찰에서 재정을 추가부담할 경우 그 이상 규모의 건립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으나 부속건물 제한 등 8개 사찰이 계획하고 있는 성보전시관 외형에 걸맞는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계종 문화사회부의 한 관계자는 "사찰측과 문화재관리국이 공사시공권 등 부분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 사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각종 자료수집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아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8개 사찰 소장문화재 현황 및 전시관 건립규모

구분 / 사찰명	말사	소장문화재 현황					건립규모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지방지정	계	
용주사	70	1	13	1	17	32	105평
월정사	72	2	6	1	9	18	200평
마곡사	89	1	19		26	46	108평
수덕사	40	1	3		16	20	202평
금산사	90	2	24	1	15	42	300평
선운사	37		7	1	12	20	250평
해인사	95	3	5		11	19	600평
대흥사	47	2	6	2	8	18	300평

※건립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중생구제는 승가의 영원한 의무"

선우도량 미래승가상 수련결사서 제기

사회다양화 대비위해 전문성 배양해야

미래사회가 정보화 과학화 기능화 자본주의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일수록 종교의 다양한 영역은 상실되지만 종교의 고유기능은 오히려 요구될 것이다. 또 승가는 시대·사조등 다각적인 변화에도 불교의 원이념을 바탕으로 중생의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승가 고유기능에 대한 의견이 지난 3~4일 양일간 실상사에서 개최한 선우도량 수련결사에서 제기됐다.

◇선우도량 수련결사에서 불교, 승가의 근본정신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공유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승가의 역할과 방향이 모호해지고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4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사회의 승가의 모습'을 이같이 제시하고 "승가는 다양화된 미래에 따른 불교관의 확립, 승가고유 역할 실현을 위한 전문성(방편) 배양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원리 제공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래사회와 승가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결사에서는 또 승가의 복장, 취미활동, 소유물, 음식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현대 문명사회에서의 승가의 위의와 처세에 대해 "승가의 위의는 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승가상이기 때문에 '청규'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교단적으로 대중과의 충분한 합의도출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상사=도필선 기자

경북 군위에 불교유적 33기

대구박물관 확인…도난·훼손대책 시급

경북 군위군에 불교유적 33기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김성구)는 군위군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인각사와 법주사 오층석탑 등 불교유적이 8개읍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종류의 불교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주사 탱화와 금동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의흥면 읍내리의 오층석탑과 우보면 나호리의 석불입상 등이 도난되거나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교육관 98년 신축 부지 10만평으로 확장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지건길)은 최근 올해부터 전시, 수장, 교육 등 3개부문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98년까지 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2천여평 규모의 사회교육관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주박물관은 내년중 사회교육관 건립에 착공키로 하는 한편 총면적 2만평 크기의 박물관 면적을 5배인 10만평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백제마애불' 학술발표회

한국미술사연구소와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제50회 미술사 강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순·고종 시대의 미술에 대한 강좌와 태안백제마애삼존불상에 대한 논문발표가 이어진다.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아미타 입상도·감로탱화 보물지정

문체부 묘법연화경·예명미타도량참법도 함께

한 소장가가 일본에서 들여와 국내에 알려졌던 고려불화 '아미타여래입상도(阿彌陀如來立像圖)'와 '감로탱화'〈사진〉가 보물 제1238·1239호로 각각 신규 지정됐다.

〈본지 3월27일자 6면 참조〉

문체부는 또 성보문화재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권 3~4를 보물 제1240호로, 직지사가 소장하고 있는 '예명미타도량참법' 권6~10을 보물 제1241호로 각각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아미타여래입상도'는 정교한 채색에 정면상을 취하고 있으며, 속살이 훤히 비치는 비단 표현 등 전형적인 고려불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세계에서 두 점밖에 없는 귀중한 문화재다.

'감로탱화'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감로탱화에 이어 두번째로 제작연대가 오래된 것으로 조선중기 감로탱화에 또다른 양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제26회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축하 범종불사 권선모연문

존경하는 한 민족 불자님!

1996년 여름 미국 아틀란타에서 제26회 세계올림픽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인류의 화합과 세계의 평화를 다짐하는 이 인류의 대축제를 우리 모두는 온몸으로 응원하고, 평화를 향한 크나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를 통해 빛나는 민족문화와 향상된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여 국위를 높인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 이세계의 대제전을 무위로 지나가게 할 수 없어 이 대회에 우리의 고유문화를 담은 범종을 기증하여 다시한번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의 여러 민족앞에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 범종은 2,600관(9t) 크기로 조성하여 올림픽경기장 인근공원에 전통적 동양식 종각을 지어 매달고 대회가 열리고 끝날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이범종을 울려 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를 또한번 한국민의 올림픽대회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새롭고 참되게 친선하고 연대하고자 합니다. 이불사는 주체적이고 문화적인 한미친선 사업으로써 그어떤 불사보다 참으로 필요한 은혜영험의 담보사업입니다.

은은한 범종의 소리에 자비화합의 가르치심과 인류의 평화공존염원이 함께 담겨 있어, 문화 언어를 달리하는 모든 민족들이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여 화합과 평화를 위해 따뜻하고 자비로운 가슴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에도 소원인 조국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지상극락이 모두 우리의 자비롭고 따뜻한 큰 가슴으로 성취되어 집니다.

분단된 국토와 분열된 민족을 통일해야 하는 우리 한민족 남북의 3천만 불자와 멀리 태평양을 건너와 문화와 문명이 다른 미국사회에 살고 있는 1백80만 한인동포들은 우리민족의 주체적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나아가 이를 서양문화에 접합하고 조화하여 재창조하려는 뜻깊은 이 불사에 기꺼이 동참하여 〈한인〉된 긍지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화합대표선수들의 사기를 높여 풍성한 성과를 올리게 하고, 문화민족인 〈한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이 불사에 적극 동참하시어 물량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복밭을 일구어주시기 진심으로 권선하는 바입니다.

※이 불사에 동참, 후원자 이름은 이범종의 표면에 새겨 드립니다.

나무 본다 달마 스님, 아래를 참조하여 동참, 후원하여 주십시요.

1996년 4월 1일

아틀란타 올림픽 축하범종 불사추진위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포교사

아틀란타 화덕사 한고려 문화 도서관건추위
대표 최소요 합장

증 명 법 주 : 월하 대종사
증 명 큰 스 님 : 금오, 전강, 동현, 덕암, 월산, 석주, 관응, 혜암, 회광, 법룡, 서옹, 원담, 월탄, 무공, 지형, 정현, 자용, 자공, 지광, 종열
지도유나큰스님 : 정영, 송담, 고산, 지관, 록원, 정일, 월주, 도문, 진제, 법홍, 철웅, 도원, 법전, 범행, 활안, 정관, 청화, 일타, 천운, 현고, 성수, 태웅, 혜정, 현해, 혜산, 월태, 오현, 정무, 지성, 종원, 현성, 현호, 동광, 정우, 진영, 무상, 법등, 성호

※ Phone No : (미국)770-473-0427 (한국) 0331-41-3466, 02-734-7478
※ 동참후원 : 제일은행-100-20-159075(최성묵)
미국 : Clayton National Bank 58710700-404855429, Sung Mook Choi
Morrow Atlanta GA30260 Sunthern Crescent Bank 0005007992 Sung Mook Choi